

블록체인 기술 기반 디지털 자산의 연결

2017320114 컴퓨터학과 최재원

오늘은 이준섭 대표님의 블록체인 기술 기반 디지털 자산의 연결에 대한 세미나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블록체인을 사전적 정의로 보자면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분산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분산 컴퓨팅 기반의 원장 관리 기술이다. 분산 컴퓨팅 기술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오래 된 기술 분야이다. 사람들은 보통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을 생각을 하는데, 블록체인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분산 원장 기술이지만, 그것을 나아가서 보자면 사실은 은행 없이 개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어떤 기술적 특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어느 정도 경제가 발전한 나라에서는 화폐가 안정되어 있고, 안정된 화폐 기반의 다양한 금융 상품이 있다. 이러한 금융 상품은 주식 투자, 펀드 투자, 보험 등이 있는데, 아프리카와 같이 화폐가 안정되지 못한 나라에서는 화폐가 불안정 하니까 화폐 기반의 투자 상품들에 대한 전통적인 방식이 없으므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아프리카에 선풍적인 관심을 끌었다.

디지털 자산을 보면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현실 화폐와 패딩 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적 재산권, 게임 아이템, 스타 연봉, 토큰화 된 전통 자산으로 보이는 부동산, 헤지 펀드, 사모 펀드, 예술품 등을 디지털 자산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 관점으로 보자면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코인류들은 virtual asset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현실화된 가치에 fact를 두고 있지 않다.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점은 효율적 연결, digital currency, 그리고 사업화 접근으로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등 다양한 연결들이 현재는 온라인 리소스의 풍족함으로 인해 큰 가치를 두고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연결에 대한

가치가 높게 측정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결이 많아질수록 단순한 이해 연결이 아닌 context 기반의 효율적 연결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효율적 연결이다. 현재는 social network을 지나서 ai 기반의 mediation network으로 진행 되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 안에서 사용자의 dynamic하고 맥락적인 환경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콘텐츠를 연결 시켜주는 것이 context network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서 맥락적이라는 것을 사례로 들면 페이스북에서는 친구 8-9명 만으로도 그 사용자의 성향을 95%로 예측 가능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사용자에게 대한 신용 평가 등 예측 모델로 사용을 하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사례로는 일본에서는 Line score, 즉 메신저로 신용 등급을 확인한다. 우리가 Digital Currency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현재 बैं킹의 복잡한 결제 정산 구조, 높은 수수료 등에 의해서다. 또한 이러한 높은 수수료 등에 이유는 지급 결제 전후방 업무의 프로세스가 복잡하고 cost도 많이 들기 때문이다. Digital currency는 거래 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다양한 거래 속성들을 넣을 수도 있다.

이렇듯 오늘 대표님의 특강을 통해서 블록체인이란 무엇이고, 현재 기술 트렌드의 관심도 그래프 및 전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퓨터학과의 입장에서 블록체인이 디지털 자산 부분에서 가지는 장점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지금까지 세미나는 비교적 교수님의 연구와 관련 되어서 어떠한 분야의 기술 설명 및 현재 발전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과학과 접목한 디지털 자산 분야 기술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뜻 깊었다. 또한 가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지는 학생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현업에 종사하는 대표님께 기술 현황 등 여러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가까워진 것 같아서 유익한 세미나였다.